

긴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 문제를 중심으로*

양윤식** · 김수민** · 이태현***

초 록

청소년기의 비행 행동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강구는 청소년의 비행 억제와 동시에 향후 성인기 범죄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바탕으로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에서 정서 문제의 개인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긴장은 정서 문제를 유발하고 이는 비행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의 개인차 확인은 진단 및 향후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여 한국 아동 청소년 초4 패널의 6차년도(중학교 3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서 문제의 개인차를 다섯 가지 잠재 집단 형태로 도출할 수 있었다. 각 잠재 집단은 가장 긍정적인 정서의 '건강', 주의집중력 문제와 공격성 문제가 두드러지는 '주의공격 우세', 사회적 위축이 두드러지는 '위축 우세',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포함되는 '보통', 가장 많은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는 '정서 문제' 집단이다. 잠재 집단에 따라 긴장과 비행의 관계 양상은 달리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범하는 비행은 각 청소년이 가진 정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도출되었다. 이는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 연구에서 정서 외 다른 요인들의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행 행동 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적절한 후속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청소년 비행, 일반긴장이론, 잠재 프로파일 분석

*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R1C1B2012424).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lee0267@cau.ac.kr

I. 서 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날로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성인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박병선, 배성우, 2016). 청소년기의 비행은 성인기의 만성적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김준호, 이순래, 1994; 오형석, 2008; 최응렬, 송병호, 김연수, 2006; 정주호, 2017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의 폭력비행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정주호, 2017).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을 통합하는 성격을 지니면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강조한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바탕으로 하였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비행 행동의 촉발 원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이다. 긴장으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청소년들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을 저지른다(이성식, 2003). 긴장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긴장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는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감정적인 평가는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다르므로 긴장 노출에 따른 비행 출현 여부도 사람마다 달리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반응의 개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긴장이 비행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매개하는 감정적 반응(emotional response)의 개인차를 주연구문제로 상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활용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변수의 응답 패턴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잠재 집단의 형태로 도출할 수 있으므로, 긴장과 비행 행동에서 나타나는 인과적 관계에 대한 추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 행동에 대한 개입 전략 수립의 시사점 및 적절한 후속 연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에는 그 원인을 사회제도 또는 사회구조적 왜곡과 모순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과 청소년이 속한 가족이나 개인의 환경적 측면으로 보는 미시적 관점(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청소년이 어떤 사회구조적 또는 개인 환경적 측면에 처해있더라도 스스로 비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심리적 관점(일반긴장이론)이 있다(황성현, 이강훈, 2013). 최근에는 일반긴장이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긴장이론은 비행과 관련된 변인인 긴장, 부정적 감정 그리고 보호요인까지 하나의 모형 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다(문병욱, 황혜원, 2006). Agnew(1992)는 이 이론을 통해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비행의 원인으로 제시하였고, 청소년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하였다. 일반긴장이론은 Merton이 제시했던 구조적 긴장(하층 청소년들이 구조적 제약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좌절)이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안된 것으로, 하층 청소년 이외에도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긴장까지도 비행의 원인으로 확장하였으며, 긴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도 긴장과 비행행동을 매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다루었다(이성식, 2003).

일반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긴장(strain)은 객관적(objective) 긴장과 주관적(subjective) 긴장으로 나뉜다. 먼저, 객관적 긴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건이나 조건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객관적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조건에 처해있다면, 같은 집단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건이나 조건을 싫어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관적 긴장은 사람에 따라 긴장으로 느낄 수도 있거나 아닐 수도 있는 사건 또는 조건을 뜻한다. 주관적 긴장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으므로 개인 또는 집단에 따라 평가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주관적 긴장은 감정적 반응(emotional response)과 관련이 깊다(Agnew, 2001). 예를 들어, 이철(2009)의 연구에서 긴장은 우울의 감정을 매개하여 비행에 간접 영향을 미쳤으며, 김재엽, 이동은과 정윤경(2013)의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 때 우울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래 애착은 비행에 대한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송지영, 박성연, 2010). 이는 또래 애착에 대한 심리적 평가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긴장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긴장의 영향은 달리 나타난다. 객관적 긴장 역이나 이에 대처하는 개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Agnew, 2001), 긴장과 비행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긴장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적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Agnew는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이성식, 2003). 첫 번째로, ‘긍정적 목표성취의 실패’는 기대와 가능성 간의 차이,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차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한다. 두 번째로,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개인에게 중요한 사물이나 사람의 상실을 통해 나타나며 부모의 사망,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버림받음, 전학, 이사 등과 같은 변화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비행 행동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긴장으로, 주로 학대경험, 신체적 처벌의 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긴장 유형(김재엽, 송아영 외, 2008)이다.

Agnew의 이론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정소희, 2007; 김준호 외, 2002),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신선인, 2008; 기광도, 2011), 및 학교에서의 폭력피해경험(이명신, 2002)이 유의미한 긴장요인들로 확인되었으며,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 제시되었던 분노,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진혜민, 배성우, 2012; 이근복, 정우석, 2007; 김영미, 2016;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 2015; 서인균, 이연실, 2016; 김재엽 외, 2008)가 진행되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은주, 2015; 김재엽 외, 2013; 우채영, 정현희, 2013).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도 학교긴장요인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긴장요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 등 사회화 과정을 획득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정주호, 2017),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성격이나 정서 상태와 같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특히,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소선숙 외, 2010; 허묘연, 2004). 예를 들

어, 부모의 폭력적 양육행동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우울이나 위축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학대를 받은 청소년은 학대를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과 우울이 높게 보고되었다(정주호, 2017). 또래집단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긴장요인이다.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내에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고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는 등 또래집단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도 다양한 긴장요인들이 존재한다. 낮은 학업성적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연구에서 비행과 관련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학교에서 차별을 받거나 또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기 때문일 수 있다(이성식, 전신현, 2009).

한편, 국내외의 연구에서 긴장이론 및 비행 행동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Mazerolle & Maahs, 2000; Piquero & Sealock, 2000). 청소년의 비행 행동은 성차(이호택, 2012),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의 관련성(이은주, 정익중, 2009), 일반긴장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김미선, 곽대경, 2013; 문병욱, 신동준, 2008; 박병선, 배성우, 2016)에 대해서 연구들마다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비행행동의 관련변인들(이성식, 2003; 이정환, 이성식, 2014; Krupa & Childs, 2014)에 대해서도 연구들마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주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적 양육태도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폭력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문병욱과 황혜원(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폭언과 체벌을 받은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재물비행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불일치하는 이유는 분석에 활용하는 표본의 이질성(heterogeneity)때문일 수 있다. 표본은 이질적(heterogeneous)인 특성을 보이는 대상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즉, 정서적 평가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연구마다 긴장과 비행의 관계가 상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서적 평가가 비슷한 대상들에게서 나타나는 긴장과 비행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긴장과 비행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Ⅲ. 방 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6번째 측정 자료인 2015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이종원, 모상현, 강현철, 정윤미, 한지형, 2016). 전체 2,378명 중 중도 탈락한 317명을 제외한 2,06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성별은 남자 1,090(52.89%)명, 여자 971(47.11%)명이다. 데이터 변환은 Excel 2016 및 R 3.4.1 버전(R Core Team, 2017)을 사용하였고, 분석은 Mplu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측정변수

1) 긴장

본 연구는 정서 문제를 예측하는 변수로 긴장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긴장은 양육방식(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 학교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 소외), 피해경험, 비행친구접촉으로 총 18개이다. 양육방식 중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수정한 척도이다. 양육방식 중 방임, 학대는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작성한 척도이다. 학교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또래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이 제작한 애착 척도 중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하위 영역당 3개씩 총 9문항으로 구성(황미경, 2010 재 인용)한 것이다(이종원 외, 2016).

양육방식과 학교적응 그리고 또래애착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변수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변수의 속성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필요한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고,

측정치들의 평균값을 표준화하여 활용하였다. 피해경험은 ‘학생은 지난 일 년 동안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제시하여 그 횟수를 측정하였다. 피해 경험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 집단따돌림(왕따), 폭행, 협박, 뺨뜯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이 포함되었다. 피해 경험의 합을 경험 빈도에 따라 나누어 이분형 변수로 활용하였다(0=피해 없음, 1=피해 있음). 비행친구접촉은 ‘학생의 친한 친구 중 지난 일 년 동안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또래비행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조롱, 왕따, 패싸움, 폭행, 협박, 뺨뜯기, 도둑질,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도박이 포함되었다. 합산한 값을 경험 빈도에 따라 나누어 활용하였다(0= 비행 친구 없음, 1= 1명, 2= 3-4명, 3=5-6명, 4= 7명 이상).

많은 연구에서 부정적 감정과 성별 또는 문제 행동과 성별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으므로(예, 구경미, 정현희(2012), 서미정(2008), 홍성훈, 김희수(2007)),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변량(covariate)으로 투입하였다.

2) 정서 문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는 직접적으로 정서를 측정한 척도가 없으므로 대신 정서 문제 척도를 활용하였다. 정서 문제는 사회정서 발달에 속하는 소영역이며,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측정치는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변수의 속성이 높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코딩을 실시하고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 척도는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의 중복 문항을 제거하고 문항을 수정한 것이다. 사회적 위축 척도는 김선희,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의 중복 문항을 제거하고 문항을 수정한 것이다. 우울 척도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중 우울 척도 13문항 중 3문항을 제거하고 사용한 것이다(이종원 외, 2016).

3) 비행 행동

비행 행동은 ‘지난 일 년 동안 해당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로 제시하여 응답 횟

수를 측정하였다. 비행 행동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조롱, 왕따, 패싸움, 폭행, 협박, 금품갈취, 절도, 도박, 성관계, 성희롱 및 폭행이 포함되었다. 비행 행동은 선행 연구들의 분류를 바탕으로 지위 비행과 범죄 행위로 나누어 속하는 비행 행동의 횟수를 합산하였다. 지위 비행은 ‘성인이 되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청소년기에는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비행’으로(김미선, 2014)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조롱, 왕따, 성관계가 이에 속한다. 범죄 행위는 지위 비행과 달리 소년법 적용을 받는 범죄인 폭행, 패싸움, 뺑뜨기, 절도, 성희롱이 이에 속한다(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시기적인 특성상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비행과 상습적인 비행은 질적인 차이를 가질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혹은 단발성에 그친 음주나 흡연 행위는 비행으로 고려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황성현, 2010), 지위 비행과 범죄 행동의 총 횟수가 1회 이하이면 범죄경험이 없음(0), 1회 초과이면 있음(1)인 이분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2. 분석방법

1)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변수들의 응답 패턴이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끼리 묶어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는 통계적 방법이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Muthén & Muthén, 1998). 도출된 하위 집단은 집단 간에는 서로 구별되는 이질적인(Heterogeneous) 특성으로 구별되고, 집단 내 구성원들은 서로 동질적인(Homogeneous) 특성을 공유한다고 가정한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Linzer & Lewis, 2011; Miettunen, Nordström, Kaakinen & Ahmed, 2016).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데이터에 잠재된 속성을 활용하여 하위 유형을 탐색하는 일종의 탐색적인 접근법이므로, 몇 개의 잠재 집단이 타당한지에 관한 사전 정보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Schmiege, Meek, Bryan & Petersen, 2012). 또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통계적 모형 기반의 군집화 기법이므로, 일반적인 군집화 기법에 비해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덜 주관적이다(Hagenaars & McCutchen, 2009). 그리고 어떤 모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다양한 지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Linzer & Lewis, 2011).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하위 집단으

로 구체화함으로써 긴장과 정서문제, 그리고 비행 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순서는 먼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정서 문제에서 나타나는 응답 패턴을 잠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긴장 원인을 예측 변수로 활용하여 부정적 감정의 잠재 집단에 미치는 긴장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 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결과로서 범죄 행동과 지위 비행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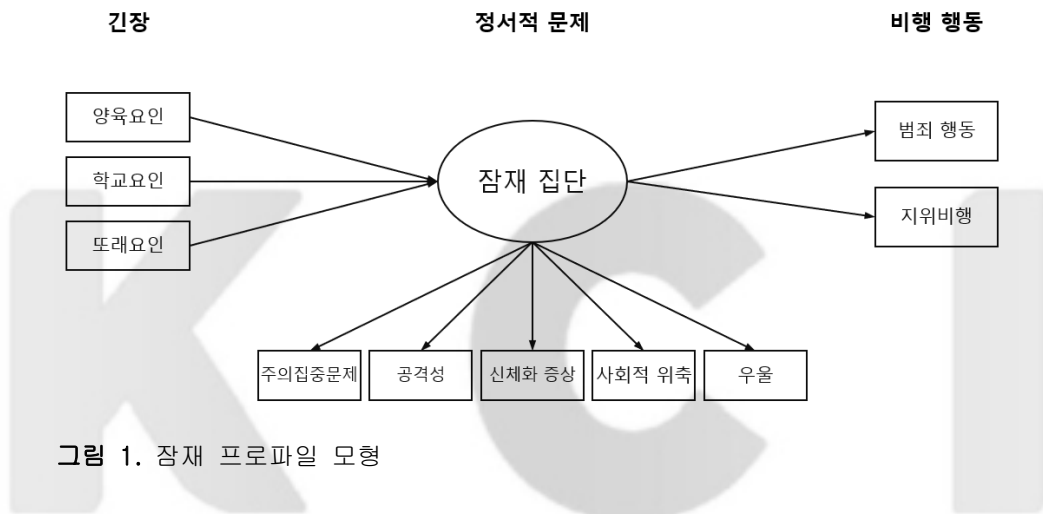


그림 1. 잠재 프로파일 모형

IV. 결 과

1. 기술 통계량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및 첨도는 표 1과 같다. 정서 문제의 평균은 1.777~2.214이므로,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정서 문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육요인도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이 높고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보아 부모들의 양육태도도 전반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요인 역시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성적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분형으로 변환한 변수는 평균만을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정 서 문 제	주의집중력 문제	2,174	0,543	0,100	0,281
	공격성	1,932	0,543	0,158	-0,095
	신체화 증상	1,889	0,576	0,277	-0,195
	사회적 위축	2,214	0,744	0,026	-0,611
	우울	1,777	0,550	0,490	0,252
양 육 요 인	애정	3,123	0,564	-0,316	0,195
	합리적 설명	2,916	0,587	-0,253	0,399
	감독	3,217	0,576	-0,588	0,774
	과잉간섭	2,125	0,624	0,269	0,083
	과잉기대	2,325	0,625	0,203	0,060
	비일관성	2,137	0,670	0,237	-0,144
	방임	1,806	0,514	0,035	-0,316
긴장 학 교 요 인	학대	1,641	0,608	1,120	1,325
	학습활동	2,875	0,539	-0,074	0,461
	학교규칙	3,020	0,518	0,015	0,899
	교우관계	3,149	0,403	0,199	0,214
	교사관계	3,041	0,601	-0,169	0,225
또래 요인	성적만족도	2,610	0,753	-0,098	-0,282
	또래애착: 의사소통	3,155	0,506	0,176	0,078
	또래애착: 신뢰	3,227	0,544	-0,146	0,093
	또래애착: 소외	1,898	0,478	0,693	0,270
	비행 친구	0,914	1,514	1,249	-0,178
비행 행동	피해 경험	0,019	-	-	-
	지위 비행	0,082	-	-	-
	범죄 행동	0,015	-	-	-
공변량	성별	남자= 1,090		여자= 971	

주. 이분형으로 변환한 변수는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보고하지 않음.

2.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1) 잠재 집단 분류

적합한 잠재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재 집단의 수가 2개인 모형부터 6개인 모형까지 각 모형을 추정하고 이의 모형 적합도(Model fit)를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BIC, aBIC, AIC 등과 같은 정보 기준(information criteria)은 수치가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나타내므로, 6개 잠재 집단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4개, 5개, 6개 집단 모두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므로, 이 세 모형은 사실상 분류의 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6개 집단 모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는 1.4%의 청소년들이 속하는 잠재 집단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들이 속해진 집단은 11.8%가 분류된 집단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이 두 집단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6개 집단은 간명성(parsimony)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VLMR과 BLRT는 잠재 집단의 수가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VLMR과 BLRT의 유의 확률이 작은 것($p < 0.05$)은 잠재 집단의 수가 k-1개인 모형보다 k개인 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5개 집단 모형은 VLMR의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4개 집단 모형이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BLRT의 유의 확률은 0.000이므로 4개 집단과 비교할 때 5개 집단 모형이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LPA를 활용하여 적절한 집단의 수를 탐색할 때, 일반적으로 VLMR보다 BLRT가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Tein, Coxé & Cham, 2013), 5개 모형의 활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 적합도, 해석 가능성, 간명성, 분류의 정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Lubke & Muthén, 2007;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Lo et al., 2001; Collins & Lanza, 2010), 최종모형으로 잠재 집단의 수가 5개인 모형을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최종 모형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4번 집단(49.49%, $n = 1020$)은 전체 청소년 중 절반 정도가 이에 속한다. 또한, 기술통계량 평균값과 추정 평균이 가장 비슷하다. 따라서 이 집단은 '보통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1번 집단(15.87%, $n = 327$)은 모든

정서 문제의 수준이 가장 낮으므로 ‘건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번 집단(8.78%, n= 181)은 주의집중력 문제와 공격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주의공격 우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번 집단(20.87%, n= 430)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위축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위축 우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번 집단(5.00%, n= 103)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 문제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정서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의 응답 패턴은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 보통, 정서 문제 세 집단은 정서적 문제의 패턴이 가로축에 평행한 형태이므로, 정서적 문제의 수준 차이에 따라 구별되는 집단이다. 반면에 주의공격 우세 집단과 위축 우세 집단은 특정한 변수의 값이 높은 패턴을 보이므로 특성이 독특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잠재 집단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집단	LL	BIC	aBIC	AIC	Parameters	VLMR	BLRT	Entropy
2	-7849.84	15821.78	15770.95	15731.69	16	0.000	0.000	0.806
3	-7528.75	15225.37	15155.48	15101.49	22	0.000	0.000	0.822
4	-7388.92	14991.50	14902.55	14833.84	28	0.001	0.000	0.797
5	-7292.48	14844.40	14736.38	14652.95	34	0.085	0.000	0.792
6	-7192.80	14690.77	14563.69	14465.53	40	0.007	0.000	0.796

주. VLMR과 BLRT는 유의 확률(p-value)을 보고함.

표 3

5개 잠재 집단 모형 추정 결과

집단 명	잠재 집단				
	1 건강	2 주의공격 우세	3 위축 우세	4 보통	5 정서 문제
잠재 집단별 구성원	15.87% (n= 327)	8.78% (n= 181)	20.86% (n= 430)	49.49% (n= 1020)	5.00% (n= 103)
주의집중력 문제	1.586	2.428	1.975	2.343	2.728
공격성	1.271	2.130	1.601	2.162	2.731
신체화	1.251	1.693	1.569	2.175	2.753
사회적 위축	1.327	1.502	2.352	2.501	3.005
우울	1.141	1.296	1.486	2.079	2.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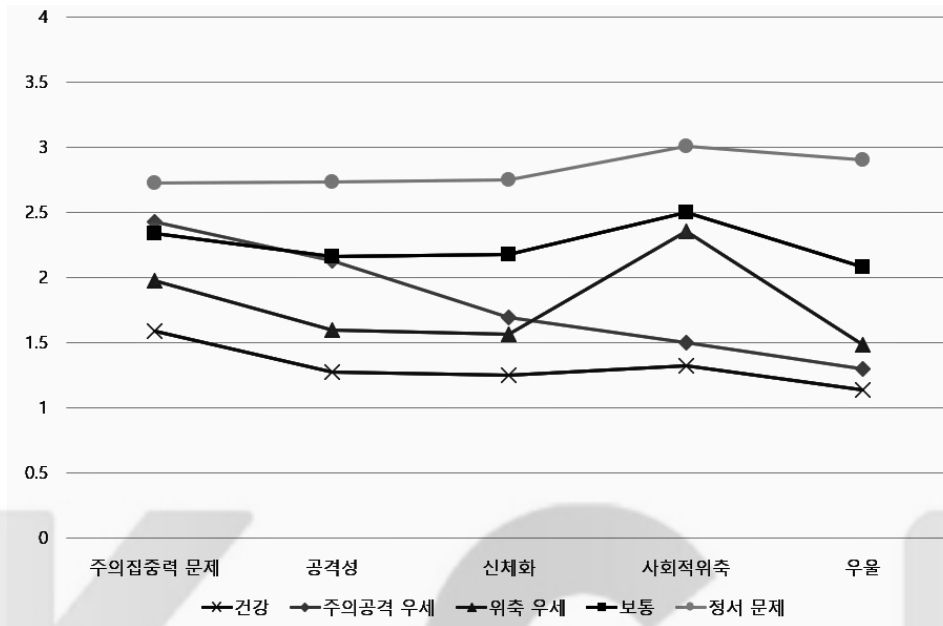


그림 2. 5개 잠재 집단 모형 추정 결과

2) 긴장과 잠재 집단의 관계

긴장이 잠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 집단은 종속 변수이고 긴장은 예측 변수(독립 변수)이며 성별은 공변량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8개의 긴장을 예측 변수로 활용하여 분석 후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9개의 긴장요인을 활용하였다. 기준 집단(Reference)은 “보통 집단”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승산비(Odds Ratio)와 95%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긴장은 보다 부정적인 정서 잠재 집단으로의 승산을 높이거나 보다 긍정적인 정서 잠재 집단으로의 승산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긴장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승산의 크기나 방향성이 상이하므로 긴장의 효과는 잠재 집단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느끼는 정도가 1-표준편차 높은 청소년들은 1-표준편차 더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건강 집단, 위축 우세 집단에 속할 승산(odds)이 낮았다. 또한, 학대를 지각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정서 문제 집단에 속할 승산이 더 높았다.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지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 문제와의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대를 지각하는 것은 긴장으로 볼 수 있다. 교사 관계의 승산비는 위축 우세 집단만이 유의하다. 이는 교사관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교사와의 관계 만족은 위축 우세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긴장일 수 있다.

표 4
긴장과 잠재 집단의 관계

집단 명	잠재 집단				
	1 건강	2 주의공격 우세	3 위축 우세	4 보통	5 정서 문제
양육 애정 요인	1.592** (1.18, 2.15)	1.178 (0.9, 1.55)	1.022 (0.83, 1.27)	참조	0.908 (0.63, 1.3)
	0.705* (0.53, 0.93)	1.132 (0.87, 1.47)	0.471*** (0.34, 0.66)		1.353* (1.04, 1.77)
학교 교우관계 요인	2.474*** (1.85, 3.31)	1.540* (1.07, 2.23)	1.891*** (1.49, 2.39)		0.699 (0.44, 1.11)
	1.141 (0.9, 1.45)	1.435 (0.99, 2.07)	0.784* (0.65, 0.95)		0.779 (0.5, 1.2)
	1.413* (1.08, 1.85)	0.883 (0.63, 1.24)	1.204 (0.95, 1.53)		0.513*** (0.34, 0.77)
또래 의사소통 요인	1.820*** (1.44, 2.29)	1.354 (0.98, 1.88)	1.083 (0.86, 1.37)		1.053 (0.74, 1.51)
	0.636*** (0.51, 0.8)	0.772 (0.58, 1.02)	0.569*** (0.44, 0.74)		1.564** (1.12, 2.18)
비행 친구	0.802** (0.69, 0.93)	1.057 (0.92, 1.21)	0.963 (0.86, 1.08)		1.229* (1.04, 1.45)
성별	0.271*** (0.18, 0.42)	0.592* (0.36, 0.97)	0.689* (0.49, 0.97)		1.933* (1.1, 3.39)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승산비와 95% 신뢰 구간. 분석은 *Mplus*의 *r3step* 명령어 활용.

3) 정서 문제의 개인차와 비행의 관계

표 5는 잠재 집단별 지위 비행과 범죄 행동의 통계적 차이 검증 결과이다. 두 비행 행동 모두 집단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행 비율을 보이는 집단의 순서도 긴장 집단, 주의공격 우세 집단, 보통 집단, 건강 집단, 위축 집단 순서로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비행 행동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정서 문제 집단이므로 부정적 정서가 비행 행동 촉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주의공격 우세 집단은 보통 집단보다 비행 행동이 높다. 또한, 비행 행동이 가장 낮은 집단은 가장 긍정적인 집단인 건강 집단이 아니다. 이는 비행 행동은 단순히 부정적 정서 수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5
잠재 집단에 따른 비행 행동의 통계적 차이 검증

집단 명	잠재 집단					chi-square
	1 건강	2 주의공격 우세	3 위축 우세	4 보통	5 정서 문제	
지위 비행 범행비율	0.067(5)	0.133(3)	0.045(2,5)	0.080(5)	0.183(1,3,4)	13.895**
범죄 행동 범행비율	0.002(4,5)	0.034	0.001(4,5)	0.016(1,3)	0.062(1,3)	15.630**

** $p < .01$. 첨자는 해당 집단과 통계적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데이터(중학교 3학년)를 활용하여, 긴장이 잠재 집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잠재 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비행 행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서 문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개인차를 잠재 집단의 형태로 도출할 수 있었다. 각 잠재 집단은 가장 건강한 특성을 보이는 건강 집단, 가장 부정적인 정서 문제 집단, 약 50%의 청소년이 포함되는 보통집단, 전체적인 정서 문제는 낮지만 주의 집중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의공격 우세 집단, 전체적인 정서 문제는 낮지만 위축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축 집단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와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혼재한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문제의 수준 차이로 구별되는 세 집단인 건강, 보통, 정서 문제 집단은 다양한 긴장요인과 유의하게 관련 있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집단일수록 더 높은 비행 행동이 예상되었다(즉, 정서 문제 > 보통 > 건강 집단). 따라서 이는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잠재 집단의 추정 평균은 비슷하지만 응답 패턴의 모양이 다른 주의공격 우세, 위축 우세, 보통 집단을 통해서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정서 문제의 추정평균은 보통집단이 가장 높으므로(즉, 가장 정서 문제가 높으므로), 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비행 행동이 예상되나 실제로는 주의공격 우세 집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주의공격 우세 집단보다 위축 우세 집단이 더 많은 긴장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위축 집단이 긴장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긴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위축 집단은 주의공격 우세 집단보다 더 높은 비행 행동이 예상되나 그렇지 않았다. 이의 이유는 비행의 원인이 긴장이기보다는 주의공격 우세 집단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의집중력 및 공격성 문제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는 정서의 잠재 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일반긴장이론을 활용한 비행 행동 연구 시에 대상의 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긴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자극의 부재(또는 부정적 자극의 지각)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즉, 부정적인 잠재 집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의공격 우세 집단에 속

하는 청소년들은 학대를 긴장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 만족은 위축
우세 집단의 승산을 높이므로, 교사관계에 더 만족하는 청소년은 덜 만족하는 청소년
에 비해 위축 우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교사와의 관계
만족은 위축 우세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일반긴장이론 또는 일반적인 상식과 모순되는 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긴장 이론의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제
공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긴장과 비행의 관계는 단순히 정적 혹은 부적인 관계가
아니며, 이를 매개하는 정서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의 연구들은 비행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회귀분석(Botchkovar, Tittle & Antonaccio, 2009; Eitle, 2010;
Hay & Evans, 2006; Hay & Meldrum, 2010; Ostrowsky & Messner, 2005), 또는 구
조방정식(Hoffman & Su, 1997; Mazerolle, Piquero & Capowich, 2003) 등을 활용하
여 긴장과 비행 행동이 가진 선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잠재 집단에
따라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는 상이하므로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는 단순히 선형
관계가 아님을 탐지할 수 있었다. 앞에서 밝혔듯이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에서 정
서 또는 개인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비행 행동 설
명을 위해 청소년을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으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아니라, 정서적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다섯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탐색한 집단의 특성은 이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 제공 및 향후 개입전략 수
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긴장
의 제거가 필요하다. 긴장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 있으며, 부정적 정서는 비행 행동과
관련 있으므로 긴장의 제거는 가장 근본적인 개입 전략일 것이다. 또한, 긴장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은 정서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결과
적으로는 비행 행동을 방지하는 개입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다 단기간에 발생
하는 긴장과 정서 그리고 문제 행동의 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한 측정치는 지난 일 년을 묻는 문항이었으므로 비행에 미치는 긴장 또는 정서의
단기적 또는 일시적인 효과는 파악할 수 없었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와 단기적

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다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파악은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긴장과 정서 그리고 비행의 인과관계를 가정하였지만, 횡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실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론은 정서를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지만, 측정한 척도는 긴장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 반응이 아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서 문제이다. 따라서 연구에서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개념은 이론에서 제시한 정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비행 행동의 차원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행 행동을 지위 비행과 범죄 행동으로 나누어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다양한 문제 행동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비행 행동의 지속성, 강도,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행 행동을 지위 비행 또는 범죄 행동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분석한다면 비행 행동과 심리적 긴장과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잠재 집단과 관련성이 높은 긴장을 찾는 것이다. 다섯 잠재 집단은 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집단에 따라 긴장이 미치는 효과 또는 중요성이 다를 것이다. 잠재 집단에 가장 관련성 높은 긴장을 찾는다면 효율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에서 이를 매개하는 정서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긴장과 정서 그리고 비행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구경미, 정현희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동적 사고,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3(3), 1295-1314. doi:10.15703/kjc.13.3.201206.1295
- 기광도 (2011). 가정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한국경찰연구**, 10(4), 93-114.
- 김미선 (2014).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선, 광대경 (2013).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시기의 폭력피해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1, 10-40.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미 (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70-481. doi:10.5392/JKCA.2016.16.01.470
- 김은주 (2015). 초등학생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인터넷 게임중독이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미치는 직, 간접효과. **초등교육연구**, 28(3), 95-122.
-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 (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295-318. doi:10.16999/kasws.2008..37.295
-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1, 101-123.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업 (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225-267.
- 문병욱, 신동준 (2008).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행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1), 33-60.
- 문병욱, 황혜원 (2006).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이해. **아동권리연구**, 10(2), 127-150.
- 민병수 (1991).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선, 배성우 (2016). 메타경로분석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의 일반긴장이론 검증. **보건사회연구**, 36(3), 270-302. doi:10.15709/hswr.2016.36.3.270
- 서미정 (2008).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4), 115-138.
- 서인균, 이연실 (2016). 청소년기 학대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4, 45-68.
-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청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부분적 검증: Ping의 2 단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309-337.
- 송지영, 박성연 (2010).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남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3), 51-66.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doi:10.16975/kjfs.2008..23.005
- 우채영, 정현희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47-168.
- 이근복, 정우석 (200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층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I)**, 217-230.
- 이명신 (2002). 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 괴롭힘 행동유형, 가해자의 심리 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29-61.
-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 (2015). 청소년의 폭력비행 피해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1-27.
- 이성식, 전신현 (2009).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한 비행이론들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2), 91-111.
- 이성식 (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 85-105.
- 이은주, 정익중 (2009). 청소년 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적 인과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2), 191-211.

- 이정환, 이성식 (2014). 대학생의 사이버범죄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긴장 이론의 검증과 그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5(4), 137-158. doi:10.14816/sky.2014.25.4.137
- 이종원, 모상현, 강현철, 정윤미, 한지형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사업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철 (2009).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3), 237-257.
-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 범죄행위에 대한 종단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2), 125-147. doi:10.35151/kyci.2016.24.2.007
- 이호택 (2012).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검증. **여성연구**, 83(2), 101-147. doi:10.33949/tws.2012..2.001
- 이효심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 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doi:10.16999/kasws.2007..32.5
- 정주호 (2017). 부모의 폭력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및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72, 149-184.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 패널 6차년도 User's Guid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2(2), 170-189.
- 홍성훈, 김희수 (2007).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193-216.
-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황성현 (2010).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비행이론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49-68.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7. doi:10.1111/j.1745-9125.1992.tb01093.x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doi:10.1177/0022427801038004001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doi:10.2307/3005950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doi:10.1007/BF02202939
- Bao, W.-N., Haas, A., Chen, X., & Pi, Y. (2014). Repeated strains, social control, social learning, and delinquency. *Youth & Society*, 46(3), 402-424. doi:10.1177/0044118X11436189
- Bauer, D. J., & Curran, P. J. (2004). The integration of continuous and discrete latent variable models: Potential problems and promising opportunities. *Psychological Methods*, 9(1), 3-29. doi:10.1037/1082-989X.9.1.3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logy*, 9(2), 291-319. doi:10.1017/S095457949700206X
- Bergman, L. R., & Trost, K. (2006). The person-oriented versus the variable-oriented approach: Are they complementary, opposites, or exploring different worlds?. *Merrill-Palmer Quarterly*, 52, 601-632. doi:10.1353/mpq.2006.0023
- Bergman, L. R., & Wangby, M. (2014). The person-oriented approach: A short

-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 *Eesti Haridusteaduste Ajakiri*, 2(1), 29-49. doi:10.12697/eha.2014.2.1.02b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doi:10.1093/jpepsy/jst085
- Blevins, K. R., Listwan, S. J., Cullen, F. T., & Jonson, C. L. (2010). A general strain theory of prison violence and misconduct: An integrated model of inmate behavior.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2), 148-166. doi:10.1177/1043986209359369
- Botchkovar, E. V., Tittle, C. R., & Antonaccio, O. (2009). General strain theory: Additional evidence using cross-cultural data. *Criminology*, 47(1), 131-176. doi:10.1111/j.1745-9125.2009.00141.x
- Collins, L., & Lanza, S.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1st ed.). New York: Wiley.
- Eitle, D. (2010). General strain theory, persistence, and desistance among young adult mal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6), 1113-1121. doi:10.1016/j.jcrimjus.2010.08.003
- Hagenaars, J. A., & McCutcheon, A. L. (2009).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 C., & Evans, M. M. (2006). Violent victimization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Examining predictions from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3), 261-274. doi:10.1016/j.jcrimjus.2006.03.005
- Hay, C., & Meldrum, R. (2010). Bullying victimization and adolescent self-harm: Testing hypotheses from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5), 446-459. doi:10.1007/s10964-009-9502-0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Transaction Publishers 2002 edition e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fman, J. P., & Miller, A. (1998). A latent variable analysis of general strain

-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 83-111. doi:10.1023/A:1023048509438
- Hoffman, J. P., & Su, S. S. (1997). The Conditional Effects of Stress on Delinquency and Drug Use: A Strain Theory Assessment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1), 46-78. doi:10.1177/0022427897034001004
- Laursen, B.,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389. doi:10.1353/mpq.2006.0029
- Krupa, J., & Childs, K. (2014). Trajectories and risk factors of criminal behavior among females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Laws*, 3(4), 651-673. doi:10.3390/laws3040651
- Lanza, S. T., Cooper, B. R., & Bray, B. C. (2014). Population heterogeneity in the salience of multiple risk factors for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4(3), 319-325. doi:10.1016/j.jadohealth.2013.09.007
- Linzer, D. A., & Lewis, J. B. (2011). polCA: An R Package for Polytomous Variable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2(10), 1-29. doi:10.18637/jss.v042.i10
- Lubke, G. H., & Muthén, B. (2007). Performance of factor mixture models as a function of model size, covariate effects, and class-specific paramet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1), 26-47. doi:10.1207/s15328007sem1401_2
- Magnusson, D. (1990).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93-222). New York: Guilford Press.
- Mazerolle, P., & Piquero, A. (1997). Violent responses to strain: An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Violence and Victims*, 12(4), 323-343.
- Mazerolle, P., Piquero, A., & Capowich, G. E. (2003). Examining the links between strain,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anger, and crime. *Youth & Society*, 35(2), 131-157. doi:10.1177/0044118X03255029

- Mazerolle, P., & Maahs, J. (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Justice Quarterly*, *17*(4), 753-778. doi:10.1080/07418820000094751
- Miettunen, J., Nordström, T., Kaakinen, M., & Ahmed, A. O. (2016).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in psychiatric research: A review and application. *Psychological Medicine*, *46*(3), 457-467. doi:10.1017/S0033291715002305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91. doi:10.1111/j.1530-0277.2000.tb02070.x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2). *Mplus User's Guide* (7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doi:10.1080/10705510701575396
- Ostrowsky, M. K., & Messner, S. F. (2005). Explaining crime for a young adult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5), 463-476. doi:10.1016/j.jcrimjus.2005.06.004
- Pastor, D. A., Barron, K.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doi:10.1016/j.cedpsych.2006.10.003
- Pyszczynski, T., Greenberg, G., Solomon, S., Arndt, J., & Schim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35-468. doi:10.1037/0033-2909.130.3.435
- R Core Team (2017).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URL <https://www.R-project.org/>.
- Schmiege, S. J., Meek, P., Bryan, A. D., & Petersen, H. (2012).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Nurshing Research*, 61(3), 204-212. doi:10.1097/NNR.0b013e3182539f4c

Tein, J.-Y., Coxe, S., &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doi:10.1080/10705511.2013.824781

Yungtai Lo, Nancy R. Mendell, & Donald B. Rubin.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Trust Testing*, 88(3), 767-778. doi:10.1093/biomet/88.3.767

K C I

ABSTRACT

The effect of strain on juvenile delinquency: With a focus on emotional disturbance

Yang, Yoonsik* · Kim, Soomin* · Lee, Taehun*

Understanding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roviding adequate solutions to them are important for retraining and preventing crime in adulthood.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General Strain Theor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in and delinquent behavior with a particular focus on emotional disturbance. We began from the assumption that,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can be helpful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 As a result of latent profile analysis of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we found five latent class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disturbance.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in and delinquency varies by classes. Whilst our results at large support the general strain theory, a number of unexplained findings remain. It seems that emotion plays a crucial role in the link between strain and delinquency.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on juvenile delinquency are discussed and other methods and research ideas are suggested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KCYPS, juvenile delinquency, general strain theory, latent profile analysis

투고일: 2018. 9. 19, 심사일: 2019. 2. 8, 심사완료일: 2019. 2. 22

* Chung-Ang University